

서양 아동복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이 윤 정[†]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A Research on the Changes of Western Children's Clothing

Yun-Jung Lee[†]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9. 9. 28. 접수일 : 2009. 11. 27. 수정완료일 : 2009. 12. 10. 게재확정일)

Abstract

Based upon literature surve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western children's clothing and characteristics over centuries.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children were given serious consideration and that fabrication of clothing began to be designed only for children. The very first clothes which revolutionized children's wear was 'a la matelot' in the 18th century which freed children from physical restriction, recognized gender difference, and sailor suit became popular among all sexes and adopted as school uniform. And then children's clothing was shortened in length and adopted tubular silhouette, which allowed greater comfort and movement. The 20th century saw children's wear reform to be carried out after the World War II due to invention of synthetic fiber, easy care dress material, mass production system and sophistication of marketing methods. Further evidence of improvement of children's social status can be found in contemporary designs: for example, 'casualized' wear, 'character design' which reflects children's psychology and 'family look' which is designed to be worn with mothers. This evolution of children's clothing within western dressing support the view that children's clothing is not a miniature of adult wear but it reflects idiosyncrasies of the era and exerts children's dignity.

Key words: children's clothing(아동복), history of costume(복식사), western clothing(서양 의복).

I. 서 론

아동복은 중요성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또한 그 연구도 많지 않다. '의복이 인간을 만든다.'¹⁾라는 말이 의미하듯, 아동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는 감각적 능력, 지각 발달, 성격 형성 및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서 의복은 성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루소는 '아동은 불완전하고 축소된 성인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저서 <에밀>에서 '아동복은 성장하는 아동들의 신체를

[†] 교신저자 E-mail : yunjlee@ginue.ac.kr

1) Thomas and Edmonds "A Minimum college Wardrobe for Fresh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8 (1984), pp. 662-676.

2) 송현옥, 박선경, "아동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2002년 유행경향의 데님소재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권 1호 (2002), pp. 77-94.

되어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아동만을 위한 아동복의 역사에 시발점이 되었다³⁾.

아동복의 변천사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양 아동복의 시대별 아동복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4~7)}, 전통 아동복의 시대별 변천과 복식의 의미 고찰한 연구^{8~11)}, 현대 아동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¹²⁾, 전통 아동복을 활용한 디자인을 제시한 연구^{13~1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시대의 아동복의 변천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고 보이며, 특히 서양 아동복식사의 경우는 17~19세기까지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서양 아동복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 문헌을 이용하여 아동복의 변천 과정을 좀 더 확대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그 과정을 3단계로 제1기는 아동만을 위한 의복이 제작되지 않았던 시기인 18세기 이전, 제2기는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 아동을 인격체로 인식하여 아동복의 변혁을 가져오게 된 18세기 말부터 정착기에서 볼 수 있는 20세기 초기까지, 제3시기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한다. 또한 기존의 서양 아동복에 대한 문헌연구들은 영어와 불어 중심의 문헌에서 그 자료를 추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일문헌들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하여, 유럽 사회에서 보고 있는 아동복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아동복의 특징도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

의 문헌 연구들은 서양 아동복 변천에 관한 태동기인 18세기 부분을 주로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긴 역사의식 속에서 아동복의 변천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서양 아동복의 변천에 대한 새로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복식사 변천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고찰만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또한 현재 아동복의 개발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아동복의 제작이 단순히 유행의 흐름 속에서 디자인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아동복 속에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 상황과 시대적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아동복 제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서양 아동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문헌,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독어로 된 서양 복식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영문과 한글로 된 문헌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유주의 사상의 태동기인 18세기 후반 이전까지, 아동복이 태동한 시기인 18세기 후반부터 정착되는 시기인 20세기 초, 20세기 전체의 3시기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역사적 변천 과정을 다루었다. 또한 지역은 유럽 중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대상 연령

3) Alison Lurie, *The Language of Clothes*, (London: Bloomsbury, 1992), pp. 38-39.

4) 천미경, "어린이 의복의 역사적 고찰 및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5) 이선희, "18세기 후기 영국에서의 활동적인 어린이 의복 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6) 임정은, 조효순, "아동복의 디자인 변천에 관한 연구: 17~19세기의 소년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지* 2권 1호 (1999), pp. 135-144.

7) 정홍숙, 이수정, "서양 아동복에 관한 역사적 고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5권 (2002), pp. 56-67.

8) 김정아,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9) 하상효,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박성실,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복복식* 18권 (2000), pp. 41-98.

11) 서윤정, "개화기 여자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2) 김재숙, 이미숙, "아동복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2007), pp. 661-676.

13) 김은경, "조선시대 유아복식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유아복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4) 나운신, "학령기 아동의 생활한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5) 문광희, 문영옥, 함연자, "민속놀이 캐릭터를 이용한 아동복 개발," *한복문화학회지* 12권 1호 (2009), pp. 5-14.

층은 11~12세까지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대별 사상과 사회문화적 배경, 과학적 발달에 따른 아동복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Ⅲ. 서양 아동복의 시대적 변천사

1. 18세기 이전 서양 아동복의 특징

서양 복식사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시대별 분류 기준이 다양하나, 18세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대, 기독교 문화가 왕성한 시기인 중세,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인 근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아동복에 대한 자료들은 매우 미약하여, 현존하는 건축물의 조각이나 화가들의 그림 속에 발견되는 아동들의 의복 속에서 그 특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아동복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동의 신체적 특성 및 활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만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2세기 로마의 벽화에서 발견되는 아동복은 허리에 벨트를 하고 토가(toga)를 입은 모습으로 성인의 의복과 같은 형태였다(그림 1)¹⁷⁾. 로마 시대 귀족층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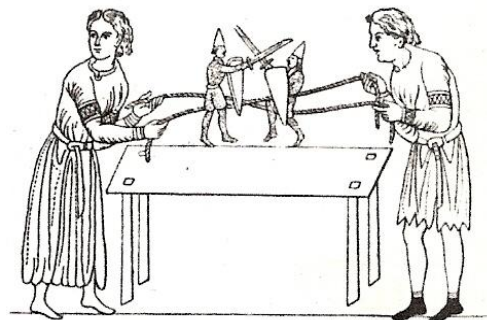


〈그림 1〉 Ara pacis Augustus의 부조(9-13), *Geschichte des Kostuems*.

녀들이 입은 의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자주색 줄무늬로 장식된 ‘토가 프렉테스타(toga praetexta)’를 입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아동들도 성인의 히마티온(himation)을 대신하여 짧은 군복 형태의 ‘클라미스(chlamys)’를 입었다는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¹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복은 성인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에서도 그 기록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전반적인 경향은 성인복과 같은 형태의 의복이 아동들에게도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아동복의 형태도 성인복과 같은 형태의 아동복이었다. 이 시기는 기독교문화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주로 교회와 관련된 그림과 복식들이 많이 발견되어 아동복의 모습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모습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독일 중세에 세워졌던 기념비에 새겨진 소년들의 옷을 살펴보면, 발목길이의 긴 슈미즈를 입고 있거나,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에 상의는 허리에 끈을 두른 슈미즈를 입고 게임하는 모습으로, 성인의 복의 모습과 형태가 같았다(그림 2).

이 후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절대왕권의 기반이 확립되고, 경제적으로 융성한 시기가 되었다.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과장된 실루엣을 가진 매우 화려한 의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들의 의복도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과 같은 과장된 옷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¹⁹⁾. 남아들은 남성 어른들



〈그림 2〉 놀이하는 독일 소년들(1195), *Modespiegel*.

16) Mary Shaw Ryan,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e, 1966), p. 193.

17) Max von Boehn, *Modespiegel*, (Berlin, Braunschweig, Hamburg: Georgwestermann, 1919), p. 116.

18) Ingrid Loscheck, *Reclams Mode- & Kostuem Lexikon*,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1999), p. 281.

19) Fan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Y.;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p. 222, p. 237.



〈그림 3〉 Anon(1590)(영국), 〈그림 4〉 Diane(1580) 20,000 Years of Fashion. (이탈리아), 20,000 Years of Fashion.

과 같이 슈미즈를 속에 입고 그 위에 상의로 부피가 큰 푸르푸앵(pourpoint)과 하의로는 쇼오스(chausses)를 입고 있는 모습이 성인의 모습과 동일하였다(그림 3). 여아들도 르네상스 시대의 어른 복식과 같은 코르셋을 착용하였고, 목에는 뺏뺏한 러프를 하고 있으며, 긴 치마는 아동의 활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인복의 축소판이었다(그림 4).

근세에 접어드는 17세기의 아동복에서도 성인복과 같은 형태의 의복을 입고 있는 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Catharina Hooft와 유모(그림 5)의 그림에서 보이는 아동복은 그 당시 유럽 전체의 패션 경향인 스페인풍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의복으로, 귀족층 아동은 뺏뺏한 러프와 뺏뺏한 치마에 긴 옷자락이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활동성이 전혀 없는 불편한 모습이었다²⁰⁾. ‘James Stuart와 여동생(그림 6)’의 그림에서도 남아는 더블렛(doublet)과 브리치스(breeches)를, 여아는 레이스 칼라와 에이프런을 가진 긴 가운과 깃털 장식의 된 캡을 쓰고 있는데, 이는 영국 귀족풍 성인의 축소판임을 알 수 있다²¹⁾. 18세기 중엽 ‘무도회’의 그림에서도 여아와 남아의 의복은 로코코 시대 전형적인 의복을 입고 있다. 로코코 시대의 여성복은 여성 취향이 가미되어, 한층 더 섬세한 곡선과 꽃, 리본, 깃털, 레이스 등의 장식되었고,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이고 빠니에(panier)로 엉덩



〈그림 5〉 Catharina Hooft 와 유모(1619), *Keine Kostuemkunde*. 〈그림 6〉 James Stuart와 여동생(1695), *The Language of Clothes*.

이 부분을 부풀려 리본이나 레이스 등으로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여성복의 경향이 여아의 의복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고, 남아의 경우에도 코트, 조끼, 바지의 형식에 여성적인 스타일이 가미된 성인남성복의 복사판과 같은 아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7)²²⁾.

이 당시 아동복의 문제점은 아동도 성인과 같이 코르셋을 입고, 속치마를 여러 겹 넣은 크리놀린 스킷에 가발까지 쓰는 복장을 한다는 것이었다. 코르셋은 신체를 죄어서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을 방해하였다. 또한 활동이 불편한 의복은 신체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아동들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활동의 저해뿐만 아니라 정리적, 심리적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림 7〉 무도회(1745), *Keine Kostuemkunde*.

20) Gisela Krause and Getrud Lenning, *Kleine Kostuemkunde*, (12. Auflage, Berlin; Schiele & Schoen, 1998), p. 126.

21) Alison Lurie, op. cit., pp. 3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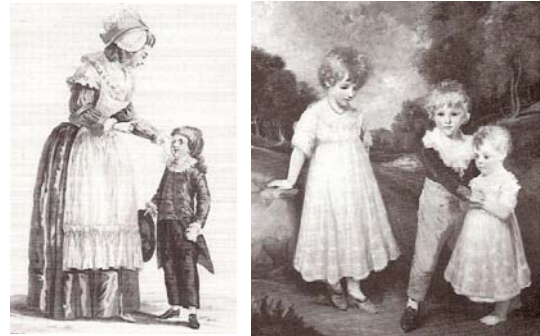
22) Gisela Krause and Getrud Lenning, op. cit., p. 152.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아동복으로서의 부적합을 언급했다. 독일의 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소머링(Soemmering)은 “독일의 아동복은 아동들을 매우 마른 체형으로 만들거나, 곱사등, 또는 어깨만 벌어진 체형으로 변형시키고, 숨 쉬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였다²³⁾.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 역시 옷으로부터 어린이들의 해방을 언급하였는데, “현재 입고 있는 아동복은 날씬한 허리와 아름다운 자세를 만들 수는 있지만, 가슴병, 짧은 호흡, 척추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딱딱한 옷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했다²⁴⁾. 루소(Rousseau)도 그의 저서 <에밀>에서 “아동의 의복과 신체적 교육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아동복은 부모들의 옷과는 달라야 하며, 특히 활동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의복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유럽 각국의 사상가와 학자들이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아동만을 위한 아동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아동복의 태동기에서의 서양 아동복의 특징 (18세기 말~20세기 초)

아동복이 성인의 축소판에서 벗어나 아동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의복이 탄생하게 된 것은 자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럽 학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18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복은 ‘a la matelot’로(그림 8), 1778년 패션잡지 *Galerie des Modes*에 발표되었다. 옷의 형태는 신체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여, 목이 죄지 않았고, 소매가 있는 상의와 넓고 긴 바지모양이었다. 이는 그 당시 신체에 맞게 입었던 일반적인 남아복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나, 1783년에 이르러 아동복의 커다란 혁명으로 받아들여졌다²⁵⁾.

또 다른 혁신적인 아동복은 아동들이 후프(hoops)



<그림 8> a la Matelot (1778-1788), *Kleine Kostuemkunde*. <그림 9> The Sackville Children(1797), *The Language of Clothes*.

나 코르셋 대신에 단순하고 편안하며, 낮은 목둘레의 머슬린 프록(frock: 원피스 드레스)을 입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유아에게 입혀졌던 것이었으나, 1780년경부터 10대의 아동들에게까지 입혀졌다(그림 9)²⁶⁾. 남아들은 짧은 재킷과 부드러운 젓힌 칼라와 바지를 입었으며, 바지의 경우 무릎을 압박하지 않는 형태가 받아들여졌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²⁷⁾. 18세기부터 남아들에게도 입혀졌던 프록 드레스가 사라지는 현상은 소년에게 입혀졌던 스커트 차림과 불편한 상체 코르셋이 사라지고 바지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아동을 위한 더 편안한 의복이 착용되었다는 점과 남·녀의 성차가 구별되어 의복이 입혀진데 대해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²⁸⁾.

1770년대에는 아동복만의 명칭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지와 재킷을 연결한 스키텔톤 슈트(skeleton suit)였다(그림 10). 스키텔톤 슈트는 다른 아동복보다 더 편안했으며, 바지 형태는 시골 농부의 바지 형태에서 고안된 것으로 느슨하고 발목길 이이며, 면으로 만들어졌다. 부드럽고 프릴이 달린 셔츠나 짧고 몸에 맞는 재킷이 바지와 연결된 것이 특징이었다. 흰색양말에 낮은 굽의 검정 신발,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는 것이 스키텔톤 슈트의 완전한 차림새였다²⁹⁾. 이 의복은 3~7세까지의 아동들에게

23) Max von Boehn, op. cit., pp. 123-124.

24) Ibid., pp. 123-124.

25) Gisela Krause and Getrud Lenning, op. cit., p. 160.

26) Alison Lurie, op. cit., p. 39.

27) 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2005), p. 157.

28) 임정은, 조효순, op. cit., pp. 135-144.



<그림 10> Skeleton Suit(1790년대),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그림 13> 세일러 슈트(1930년대), *The Language of Fashion*.

거의 40년 동안 입혀졌으며, 18세기에 싹튼 자연주의 사상이 아동복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해석되었다³⁰⁾.

1850년경부터 세일러 슈트(sailer suit)가 등장했는데, 이 슈트는 빠른 속도로 유행하였다. 18세기 말 루이 17세의 어린 시절에도 세일러 슈트를 입은 모습이 발견되었는데(그림 11), 이 당시에 보인 세일러 슈트는 긴 바지에 부드러운 허리 벨트를 둘러싼 모습으로 비추어 보아 아동의 활동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일러 슈트가 더 유행하게 된 계기는 해군복의 영향인데, 웨일즈의 왕자들이 세일러 슈트를 입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860년대의 세일러 슈트는 긴 바지와 큰 사각형의 칼라를 가진 블라우스 형태였으며, 둥근 맥고모자(straw hat)을 쓰고 있었다. 겨울에는 면이나 리넨 대신 네이비색의 모직물로 된 세일러 슈트를 입었으며, 곧 모든 나이와 성별에 관계 없이 입혀졌었고, 소녀들은 바지 대신에 스커트를 입었다(그림 12). 유럽과 미국에 걸쳐 유행했으며, 20세기 초에는 중산층의 남녀 아동들의 평상복이 되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널리 유행하였다(그림 13)³¹⁾.

1886년 소설 ‘소공자’에 소개된 파운틀러로이 슈트(faunteroy suit)도 소년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슈트였다(그림 14). 초기 슈트는 검정 혹은 사파이어 블루의 재킷이었으며, 니커보커를 입고, 큰 레이스의 반다이크 칼라의 흰색 블라우스를 입는 차림이었다. 실크 장식 띠를 하고, 실크 스토킵과 버클이 있는 펌프스를 신고 큰 베레모를 하고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었다. 이 복장은 18세기 말의 ‘The Blue Boy’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으며(그림 15), 소설 ‘삼총사’의 주인공 복장도 회상케 했다. 그러나 이 옷은 소공자에 등장하는 세드릭(Cedric)의 이미지가 여자 같은 남자아이를 연상케 하고, 미국과 영국의 작가들은 그런 소년의 모습에 이 옷을 결부시켜 결국은 소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³²⁾.



<그림 11> 세일러 슈트 (1790), *Geschichte der Kostuems*.



<그림 12> 소녀 세일러 슈트(1897), *20,000 Years of Fashion*.

29) Doreen Yarwood, *Fas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T. Batsford LTD, 1992), pp. 80-81.

30) 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op. cit., p. 157.

31) Alison Lurie, op. cit., pp. 41-42.

32) Alison Lurie, op. cit., pp. 42-43.



〈그림 14〉 Fauntleroy Suit, 〈그림 15〉 The Blue Boy, *The Language of Clothes. 20,000 Years of Fashion.*

그 밖에 남자 아동에게 입혀진 의복으로 1870년대의 리퍼 재킷(reffer jacket), 1880년대의 단순한 색상이나 줄무늬가 있는 블레이저 코트(blazer coat) 등이 있었다(그림 16). 블레이저 코트는 학교에서 입거나 크리켓 또는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를 할 때에 입었는데, 19세기 말에는 교육의 혁신과 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해 특별한 아동복을 요구하게 되어 교육과 사상의 발달이 아동복의 혁신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³³⁾.

여아들의 의복도 18세기 후반부터 어른들의 스타



〈그림 16〉 Blazer 코트(1880), 〈그림 17〉 스포츠웨어 한복문화학회지 2권 1호. (1807), *Geschichte des Kostuems.*



〈그림 18〉 슈미즈 드레스 (1897), *Geschichte des Kostuems.* 〈그림 19〉 파리 스타일 NO. 1313(1813), *Le Costume Français.*

일과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시대마다 기본적인 실루엣은 성인 의복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아동복은 단순한 형태의 직선 드레스가 많았고, 길이도 짧아졌음을 볼 수 있었다³⁴⁾. 예를 들어 1800년대 초기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에는 소녀들의 의복은 성인 여성의 슈미즈 드레스와 똑같은 형태의 슈미즈 드레스였으나, 길이가 짧아져 입었을 때 편안함을 보여주었다(그림 18)³⁵⁾. ‘파리 스타일 NO. 1313(그림 19)’에서 보이는 여아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형태는 직선이고 둥근 소매를 하고 있으며, 상체에 십자 형태로 넓은 장식끈을 두른 모습은 성인복과 다른 아동복의 연령층을 반영한 귀여움을 보여준다. 또한 스커트 길이가 짧아 아래에 판탈론이 보이는 것과 판탈론은 무릎아래 부분을 묶어 프릴과 리본의 모습은 성인복과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³⁶⁾.

19세기 중엽에 매우 적지만 일부 아동들이 코르셋과 페티코트하고, 허리가 조이는 아동복을 입었으나, 스커트 길이는 아동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짧았다. 드레스 디자인, 머리, 보닛, 부츠 등은 모두 어른의 형태를 모방하였다(그림 20)³⁷⁾. 1880년 무렵 버슬 스타일 시대에는 버슬 스타일을 입었으며, 아동복의 형태는 어깨에서부터 스커트 단까지 일자로 내려오며 스

33) Ingrid Loscheck, op. cit., p. 282.

34) Fannçois Boucher, op. cit., p. 316.

35) Ingrid Loscheck, op. cit., p. 282.

36) J. Ruppert, M. Delpierre, R. Davray-Piekolek and P. Gorguet-Ballesteros, *Le Costume Français*, (Paris: Falmarion, 1996), pp. 223-224.

37) Doreen Yarwood, op. cit., p. 106.



〈그림 20〉 여아 아동복 (1855),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그림 21〉 1880년대 아동복 (버슬스타일), *Kleine Kostumkuende*.



〈그림 22〉 벨벳프록 코트, 〈그림 23〉 Greenaway-style, *20,000 Years of Fashion. The Language of Clothes*.



커트 단에서 몇 인치 올라간 위치에 벨트를 매었다(그림 21). 그 외 러시아 블라우스, 스카치 줄무늬 드레스, 스모크(smock) 드레스와 세일러 드레스를 입었다.

이 당시 아동복은 여아들의 옷길이가 짧아져서 속에 입은 판탈룬이 무릎 아래로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아동복이 어른과 똑 같은 형태에 크기만 축소시킨 것 같았던 과거의 아동복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아동복의 형태가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아동복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벨벳프록 코트(그림 22)와 ‘그린웨이 스타일(Greenaway-style)(그림 23)’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벨벳프록 코트를 입고 있는 여아의 옷 형태는 벨벳으로 만든 품이 넓은 프록 코트에 흰색 칼라의 모양과 더욱 짧아진 옷길이를 볼 수 있다. 바지의 형태는 타이트하여 현대 아동복에 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³⁸⁾.

또한 Greenaway-style의 프록(frock)은 1880년대와 1890년대에 걸쳐 활동한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린웨이(Greenaway)가 발표하였는데, 동시대와 비교해서 거의 100년을 앞서는 아동복의 형태였다(그림 23). 이 모습은 오늘날 소녀용 파티복과 비슷하며, 그 당시에 길이가 짧아 판탈룬이 보이는 옷길이는와 다른 발목길이나 마루는 끈의 길이 정도의 드레스였음을 보여주며, 여아복의 흐름을 새로이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부터 19세기의 아동복은 아동을 인격체로 인식하여 아동만을 위한 아동복이 태동되어 발달되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인복과 명칭도 다른 아동복만의 명칭이 생겨났으며, 전체적인 형태와 디자인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 성인복에 의한 영향에서 벗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⁰⁾.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동복의 디자인은 성인의 것과 비슷하나,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여 활동이 편리하고, 편안한 형태의 의복으로 변하여 가고 있으며, 의복의 형태도 점점 더 다양해졌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패션 잡지에서 어린이들만의 의복스타일이 언급되는 등 아동복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발달되었다.

3. 20세기 서양 아동복의 특징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동복의 변화는 어른들의 빠른 패션변화에 맞추어 디자인 변화에 가속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아동복의 또 다른 변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르러 다시 일어났다고 보는데, 합성섬유의 개발, easy-care 옷감과 효율적이고 단순한 잠금장치 등이 이러한 변혁을 가능하게 했다⁴¹⁾.

1900년대의 초기의 아동복은 다소 편안한 착장감을 주진 못하였다. 남아들의 의복은 일반적으로 짧은 바지와 재킷, 웨이스트 코트나 폴오버였고, 발목까지 오는 모직 양말, 끈이 달린 구두와 모자, 세일러 슈

38) Fannçois Boucher, op. cit., p. 364.

39) Alison Lurie, op. cit., pp. 44-45.

40) 임정은, 조효순, op. cit., pp. 135-144.

41) Doreen Yarwood, op. cit., p. 148, p. 160.



〈그림 24〉 1900년대 아동복, 20세기 패션, 20,000 Years of Fashion.

트가 유행하였다. 여아들은 여러 겹의 속옷, 긴 스타킹, 프릴이 달린 정교한 모자와 옷을 착용하였으며, 발목길이의 중 모양의 스커트나 주름치마를 입은 모습이 보였다(그림 24). 이 시기의 아동복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과는 달리 성인의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아동들이 따르는 형식이었으나, 다양한 기능과 여러 가지 기후에 잘 이용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의복들이 있었으며, 새로운 옷감과 제작기술, 마케팅의 발달로 아동복의 발달을 이루는 시기였다⁴²⁾.

1910년 이후부터 아동복은 점점 더 활동이 편한 의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품이 넉넉한 기본적인 라인을 유지하였고,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소녀들의 스커트 길이가 발목위로 올라왔으며, 스스로 상체를 조이는 옷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시작되었다. 어린 여아들의 드레스는 윗부분에 스모킹(smoking)을 하여 장식을 하고, 넓은 밴드로 감싸고 무릎길이였다(그림 25).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냉전기간 동안에 소녀들은 짧은 스토킵과 양말을, 소년들은 발목길이의 바지를 즐겨 착용했다⁴³⁾.

1930년대의 아동복은 긴 단추가 달린 셔츠와 같이 재단된 드레스가 기본 스타일이었고, 이러한 셔츠 드레스는 지금까지 표준 드레스 스타일로 남아있다. 남아들도 여아들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유행하던 단순하고 편안한 라인을 따랐으나, 대신 활동적인 운동복을 제외하고는 올바르게 단정한 차림을 할 수 있



〈그림 25〉 1910년대 여아 〈그림 26〉 1930년대 아동복, *Le Costume Français*. 20세기 패션.

도록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그림 26)⁴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성인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에도 많은 제약이 생겨났는데, 아동복의 특징은 비형식성과 안락함이 겨울용 옷에서부터 여름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옷에서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 중 사이렌 슈트(siren suit)는 올인원 스타일의 옷으로 입고 벗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에 전쟁기간동안 엄마와 함께 아동들에게도 널리 유행하였다(그림 27).

1950년대의 아동복의 특징은 점차적으로 남자들의 정장과 소녀들의 폭 넓은 옷이 사라지기 시작했소 소녀들의 아동복은 성인복에 비해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스타일로 변화해갔다. 복은 기에 나일론 등 합성 섬유 발농들의 손질복은 간편한 가공법의 발달 등 소재에 혁신과 플라스틱의 발농은 다양한 색상과 등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아동복 스타일에 매우



〈그림 27〉 사이렌 슈트, www.bbc.co.uk



〈그림 28〉 1950년대 아동복, www.samsungdesign.net

42) Ibid., p. 148.

43) Ingrid Loscheck, op. cit., p. 283.

44) <http://samsungdesign.net>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유아에게는 편안한 놀이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에 마더 도터(mother- daughter) 드레스가 유행하였고(그림 28), 바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아동과 십대들의 옷에 분명한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고려하여 연령층별 의복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음이 큰 혁명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50년대는 의복의 소재에 대한 혁신뿐 아니라 스타일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구분 등 아동복의 제2의 변혁을 이루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아동복은 50년대보다 편안하면서 실용적이고 심플한 스타일이었으며, 겨울용 Anorak과 여름용 블루중, 스웨터는 주말에도 착용되는 의복이며, 아동용 블루진이 남아, 여아 관계없이 입혀졌다⁴⁵⁾. 이 시기의 아동복들은 성인복 특히 성인 레저복의 발달에 따른 모방 경향임을 알 수 있다⁴⁶⁾.

1970년대 이후 아동복은 연령별로 더욱 세분화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 디자이너들이 영유아복, 청소년복 브랜드를 활성화하게 되어, 아동복에도 디자이너 브랜드 네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즉, 아동복에 있어서 경제의 성장, 가정 내의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부모의 관심도 증가, 교육 기회의 증가로 인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동복은 단지 활동성에 의해서만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의 관점 변화를 가져와 패션화, 고급화를 지향하였다.

현재에 이르러 아동복의 형태와 종류는 더욱 더 다양해졌으며, 아동들도 연령별, 계절, 상황에 따라 다른 옷차림을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아동복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 아동을 보다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의미를 지닌 디자인 경향은 아동복의 캐주얼화(그림 29), 아동복의 캐릭터 디자인화(그림 30), 엄마와 함께 입는 패밀리 룩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31).

아동복의 캐주얼화는 아동을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아동만의 특성을 강조하는



〈그림 29〉 1970년대 아동복, *주부생활*(1976).



〈그림 30〉 캐릭터 디자인, 〈그림 31〉 패밀리 룩,
www.naver.com www.naver.com

것이다⁴⁷⁾. 이 때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진(jeans)이 있으며, 진은 아동복의 캐주얼화에 큰 역할을 한 소재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도 가공법과 염색법만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 캐릭터 디자인의 등장은 아동의 감성을 존중하고, 아동이 의복으로써 자아 표현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의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TV나 영화,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꿈을 의복에 디자인 된 캐릭터를 입음으로써 이루고자 한다.

한편, 현대에 들어 아동복에는 성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모방이 의복에서도 나타나는데, 성인복과 같은 디자인이나 엄마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그 예이다. 패밀리 룩이나 “마더-도터” 의복이 가장 대표

45) <http://samsungdesign.net>

46) Ingrid Loscheck, op. cit., p. 283.

47) 이선민, “아동관을 통해 본 아동복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82.

적인 형태로, 이는 엄마가 ‘아이는 작은 나’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이를 통해 내가 보여 지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를 닮고 싶은 모방심리를 충족하는 인상이 짙다⁴⁸⁾. 이는 디자인의 형태에서는 성인 축소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즉, 색상을 아동의 취향에 맞도록 했으며, 소재면에서도 세탁이 쉽고 아이들이 활동하기 편한 순면제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⁴⁹⁾. 이러한 경향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자 하는 시대정신이 아동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동은 의복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양 아동복의 변천 과정을 그간 불충분했던 독일문헌을 중심으로 의복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서양문화권에서는 아동을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생각은 아동복의 형태를 성인복의 축소형으로 존재하게 했다. 18세기 이르러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학자들의 주장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로크, 루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교육을 통해 이어졌고, 아동만을 위한 의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아동복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의복은 18세기 ‘a la matelot’로 그 형태는 목이 죄지 않고, 소매가 있는 상의와 넓고 긴 형태의 바지였다. 이 옷은 그 당시 신체를 죄는 다른 옷들과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속박을 풀어주는 옷이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의복에서의 남·녀 아동에 성차가 생겨, 남녀복의 구별이 생겼다. 최초의 아동복만의 명칭을 가진 의복인 ‘스켈레톤 슈트’가 나왔으며, 그 이후로 이튼 재킷, 타탄 슈트, 파운틀러로이 슈트 등이 아동을 위한 의복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 때 만들어진 세일러 슈트는 20세기 중반까지 남, 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행하였으며, 학교의 교복으로도 이용되었다.

셋째, 여아의 경우에도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드레스들이 입혀졌는데, 스목 드레스, 세일러 드레스 등이 있었다. 일부의 시기에는 성인의 드레스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드레스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활동하기 편한 실루엣으로 변했다.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 속에 입은 팬탈룬이 드레스 밖으로 보이는 것은 아동복만의 특징이었다.

넷째, 20세기 아동복의 특징은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며, 또 한 번의 아동복의 변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르러 다시 일어났다. 이는 합성섬유의 개발, easy-care 옷감, 대량생산 체제와 마케팅의 발달로 인해 가능하였다. 1910년 이후 아동복은 점점 더 활동에 편안한 의상으로 변화하여, 품이 넉넉한 기본적인 라인을 유지하였고, 1930년대의 긴 단추가 달린 셔츠 드레스의 기본 스타일은 지금까지 표준 드레스로 남아있다. 소년들도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편안한 라인을 따랐으나, 올바르게 단정한 차림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교육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아동복과 침대들의 옷에 구분이 생겼으며, 관리의 편리성, 액세서리의 발달, 어린이옷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아동복의 스타일이 매우 다양해졌다.

다섯째, 현대 패션에서의 아동복 중 아동을 보다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디자인의 예로 아동복의 캐주얼화, 아동의 심리를 표현하는 ‘캐릭터 디자인’과 엄마와 함께 입는 ‘패밀리 룩’이 있다. 아동의 캐주얼화는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의 활동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릭터 디자인의 등장은 아동의 감성을 존중하여 아동의 의견이 사회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패밀리 룩도 아이를 통해 엄마가 보여 지고 싶은 대로 표현하며, 아이는 엄마를 닮고 싶은 모방심리를 충족하는 것으로 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양 복식에서의 아동복의 흐름을 살펴해보았을 때 아동복에는 두 번의 큰 혁신이 있었다고

48) 이선민. op. cit., p. 62.

49) 조선일보, 2000년 3월 22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동의 신체와 인격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철학자와 교육자들이 아동복의 변혁을 주장하여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고, 두 번째의 혁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의복 소재들이 발명되므로 인해 보다 아동들의 활동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동복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 차례의 혁신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동이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동복을 아동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아동만의 시대 특징과 품격이 있는 옷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동복 연구를 독일까지 확대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추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아동복의 큰 흐름만을 제시하여 추후에는 시대와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동양과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중심 의복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사상 연구와 서양 국가간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법,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 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 김은경 (1993). “조선시대 유아복식의 조형성을 활용한 현대 유아복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03).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 이미숙 (2007). “아동복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권 4호.
- 나윤신 (1999). “학령기 아동의 생활한복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광희, 문영옥, 함연자 (2009). “민속놀이 캐릭터를 이용한 아동복 개발.” *한복문화학회지* 12권 1호.
- 박성실 (2000).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복복식* 18권.
- 서윤정 (1999). “개화기 여자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영 (2002). “카탈로그를 이용한 아동복 구매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옥, 박선경 (2002). “아동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2002년 유행경향의 데님소재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권 1호.
- 이경희, 김연희, 신은영, 이종숙, 정명희 (2006). *복식의 아이템*. 서울: 경춘사.
- 이선민 (2003). “아동관을 통해 본 아동복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1997). “18세기 후기 영국에서의 활동적이 어린이 의복 출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은, 조효순 (1999). “아동복의 디자인 변천에 관한 연구: 17~19세기의 소년복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지* 2권 1호.
- 정홍숙, 이수정 (2002). “서양 아동복에 관한 역사적 고찰: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5권.
- 조선일보. 2003년 3월 22일자
- 천미경 (1979). “어린이 의복의 역사적 고찰 및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상호 (2001). “전통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ucher, F.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 Krause, G and G. Lenning (1998). *Kleine Kostuemkunede*. Berlin: Schiele & Schoen.
- Loscheck, I. (1999). *Reclams Mode- & Kostuem Lexikon*.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 Lurie, A. (1992). *The Language of Clothes*. Great Britain: Bloomsburry.
- Max von Boehn (1919). *Modespiegel*. Berlin, Braunschweig, Hamburg: Georg Westermann.
- Ruppert, J., M. Delpierre, R. Davray-Piekolek and P. Gorguet-Ballesteros (1996). *Le Costume Français*. Paris: Falmmarion.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e.
- Thomas, H. M. and M. N. Edmonds (1984). “A mini-

- mum College Wardrobe for Fresh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8. www.bbc.co.uk
- Yarwood, D. (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T. Batsford LTD. www.naver.com
- www.samaungdesign.net